

# 평택을 AI 맞춤형 선거 판세 분석

객관적 데이터와 AI 기반의  
선거 환경 진단 및 승리 마스터플랜

분석일: 2026-03-22

대상 선거구: 평택을

보고서 유형: 공통 판세 분석



# 45-59세 중장년층이 선거의 주도권을 쥐다



최다 유권자 그룹이자 최고 투표율 예상 계층.  
(관심사: 관광 경제, 자녀 교육비, 의료, 노후)



~68%

예상 투표율  
(최근 3회 선거 평균)



~22%

스윙보터 추정 비율  
(당락의 핵심)



3개

주요 투표 블록  
(지역 커뮤니티, 공무원, 사업자)



56%

SNS 정보 의존도

# 승패를 가르는 3대 결정 변수와 투표율 압력

## 경제 회복 가속화



관광/소비 회복  
체감 경기가  
판단의 기준점.

## 세대교체 요구 강도



'변화 vs 안정'의  
분열 구도가  
핵심 긴장축.

## 후보 검증 이슈



선거 후반  
공방이 판세를  
급변시킬 리스크.

## 투표율 동인





### 상승

경쟁 심화  
경제 이슈 점화  
조직 동원력  
SNS 관심도

### 하락

후보 차별성 부재  
정치 불신  
약천후/투표일 요인

# 경제 프레임 선점이 승리의 지름길이다

	선거 프레임	발생 확률	현재 진행 징후	유리한 후보 유형	불리한 후보 유형
1	경제 선거 (생활비·일자리)	35%	물가 불만 SNS 확산	 행정형  현직형	 신인형
2	세대교체 선거 (변화·혁신)	28%	청년층 정치 참여 증가	 개혁형  신인형	 현직형  행정형
3	안정·검증 선거 (경험·신뢰)	25%	시니어층 안정 선호	 현직형  행정형	 신인형
4	이슈·전문성 선거 (특정 정책)	12%	돌발 이슈 대기 중	 전문형	일반 정치인



**Actionable Insight:** 프레임 설정의 골든 구간은 선거 공식 시작 후 초반 6주입니다.  
유리한 프레임을 선점하십시오.

# 부동층을 움직이는 3대 핵심 정책 타겟

## Priority Heatmap



## Deep Dive

### 생활비 (87):

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 상승.  
전 연령층 최우선 불만.

### 일자리 (82):

청년 취업난 + 중장년 고용 불안.  
다각화 요구.

### 관광 (78):

지역 경제 직결.  
45-59세 핵심 타겟층의 최우선 관심사.

# 기저에 깔린 조직표와 조기 투표의 무게



## 조기 투표 (~30%)

전체의 30%가 사전 집계.  
조기 투표 2일 전까지의  
지지층 결집이 캠프의 기초 체력.



## 조직 투표 (~18%)

공무원, 노조 등 조직화된 집단.  
일반 유권자 대비  
투표율 15-20%p 높음.



## 커뮤니티 투표 ( $\pm 8\%p$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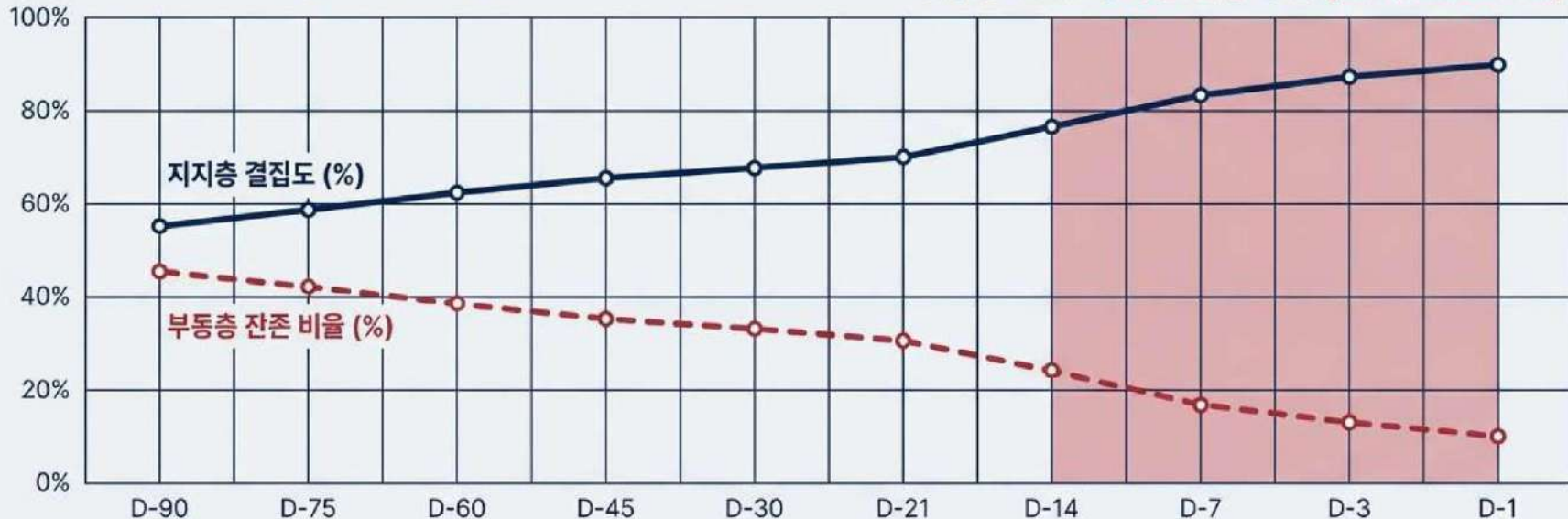
특정 지역/종교 그룹의 집단 행동.  
리더 지지가 결정적 레버리지.

이 세 가지 블록을 통해 '지지층 굳히기'가 선행되어야,  
막판 스윙보터 공약을 위한 화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# 승패의 65%는 막판 2주(D-14)에 결정된다

The D-14 Convergence Graph

부동층 65%의 최종 결정 구간 (Golden Zone)



초반 70일은 지지층 결집과 구도 싸움입니다.

실제 선거의 승패는 완벽하게 기획된 막판 14일의 미디어 노출과 화력 집중도에 달려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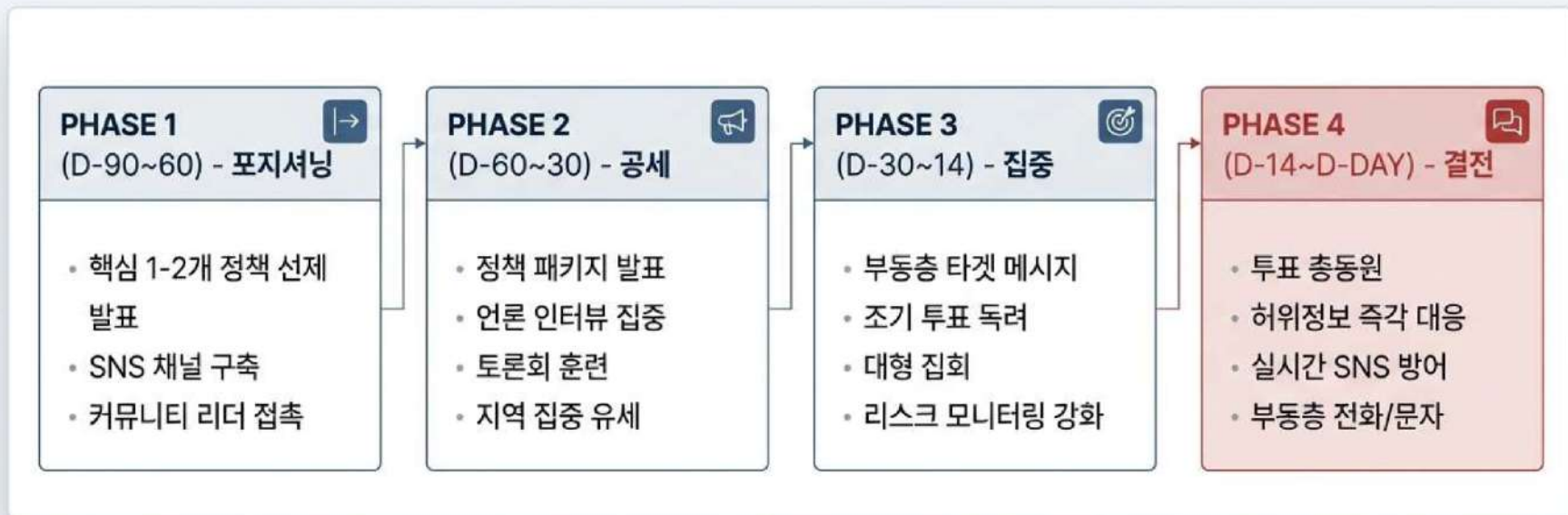
# 치명적 리스크의 전이 경로와 차단벽

## Risk Propagation Flowchart



**리스크는 예방이 대응보다 10배 효율적입니다.**

# D-90 타임라인: 승리를 위한 전술 배치도



# 온라인 캠페인 승리 원칙: 타이밍이 70%다

## 플랫폼 집중



Facebook, Instagram, 카카오톡 3개에  
화력 집중. 분산 금지.

## 영상 우선 (Short-form)



60초 이내 영상이 텍스트 대비 도달률 3배 이상  
(릴스/쇼츠 적극 활용).

## 게시 타이밍



최고 반응 구간인 오전 7-9시, 오후 6-9시 공략.  
(주 5-7회 정기 게시).

## 댓글 방어선



48시간 내 모든 댓글 대응 원칙.  
부정 댓글도 성실한 답변이 최선의 방어.

온라인은 '도달 범위'를, 오프라인은 '지지 확산'을 담당하는 역할 분리 전략이 최종 승리를 견인합니다.